

# 避諱의 유래와 종류, 방법에 관한 고찰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sup>1</sup>

윤창열<sup>1</sup> \*

## 關於避諱之由來種類和方法的研究

尹暢烈<sup>1</sup> \*

<sup>1</sup>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通過對避諱的由來、種類和方法進行研究和考察，得到了如下之結論。

古人認為人的名字乃自身之代表，本身就具尊嚴性，所以古來既有不輕易呼喚名字，並尊崇名字的風俗，而在行冠禮之後，則取字以替代其名，這都與實名敬避和尊名的風俗有所關係。

早期的避諱，以對生者不隨便呼其名的“不名”和對死者不輕易稱呼其名的死諱為主，這些都源於樸素的尊敬與恭敬。生諱始自秦始皇之時，初期僅限於對天子和諸侯的名字進行避諱，而對嫌名則未曾進行避諱。避諱的種類，包括出於恭敬而避諱的敬諱，出於心理排斥而避諱的忌諱，以及出於憎惡和討厭而避諱的憎諱，但總以敬諱為其主幹。至於避諱的方法，主要有改字、改稱、空字、作某、標諱、缺字、缺筆(缺劃)和更讀等法。

在我國，避諱究竟始於哪一時代目前難以確認，但在新羅時代的金石文中，可以看到不少有關避諱與缺筆的例子，在高麗時代則對帝王的名字通過改字或缺筆來進行了避諱，朝鮮時代則為了排除避諱的弊端，對王族的名字取以生僻之字，使避諱所致的弊端大為減少。

**关键词：**避諱，敬諱，忌諱，憎諱，改字，空字，缺字，更讀。

## I. 서론

과거 漢字문화권에서는 임금이나 尊者의 이름을 직접 부르거나 쓰지를 못하였는데 이를 避諱라고 부르며 처음에는 단지 尊敬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을 뿐이었다. 避諱의 풍속은 문헌 기록을 보면 周나라 때부터 시작되어 후세로 갈수록 더욱 더 엄격하게 시행되었는데 이러한 규정을 어기게 되면 가볍게는 벌을 받았고 심하게는 敗家亡身까지 하였다. 그 일례로 金나라 때의 張元素는 27세에 進士 시험에 응시하였는

데 廟諱(金나라의 이미 사망한 이전 황제의 이름)을犯하여 낙방하였다.

명나라 태조 朱元璋은 어렸을 때 머리를 깎고 중노릇을 한 적이 있어 光字를 꺼려하였다. 그는 의심이 많고 항상 남이 자신을 업신여길까 걱정하였다. 杭州府學 教授 徐一夔가 일찍이 축하하는 表를 지었는데 그 말속에 “光天之下”라는 말이 있었고 또 “天生聖人 爲世作則(하늘이 성인을 낳으시어 세상을 위해 법을 짓다)”라는 말이 있었다. 태조가 그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이르기를 “腐儒가 감히 이와 같이 나를 모욕하는가? 光이란 중이다. 내가 중노릇을 한 적이 있고 光은 머리털이 없는 것을 말하며 則字는 소리가 賊字와 비슷하다. 不敬한 죄를 지었으니 체포하여 斬하라고 名하였다!” 이러한 일은 어처구니없게

\* 교신저자 : 尹暢烈,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042) 280-2601, E-mail : yooncy@dju.ac.kr  
접수일(2009년 4월 24일), 수정일(2009년 5월 11일),  
게재확정일(2009년 5월 15일)

도 피휘가 남용된 사례이지만 전통 사회에서 피휘가 얼마나 강조되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周禮』「春官·小史」에서는 “則詔王之忌諱(왕의 기일과諱를 세상 사람에게 알린다)”라고 하였다. 後漢 시대의 鄭玄은 注에서 “先王死日이 爲忌오 名爲諱라”고 하였다<sup>2)</sup>. 따라서 원문의 뜻은 “신하와 백성들에게 先王의 돌아가신 날을 알려주어 이 날은 음약을 연주하지 않게 하고 왕의 이름을 알려주어 함부로 부르지 않게 하였다”는 뜻이다. 대체로 秦漢 이전에는 단지 본래의 이름 자만 避하고 嫌名은 避諱하지 않았다. 『禮記』「曲禮上」에서 “禮不諱嫌名”이라는 말이 있다<sup>3)</sup>. 鄭玄은 注에서 “嫌名은 謂音聲相近이니 若禹與雨, 丘與區也라.”고 하였다<sup>4)</sup> 陳澧는 간단하게 “嫌名은 音同者라”고 하였다<sup>5)</sup>. 이를 통해 볼 때 古禮에서 신하나 자식들이 임금이나 아버지 등의 이름을 避諱할 때 음이 같거나 소리가 비슷하다고 避諱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秦漢 이후로 諱法이 더욱 엄격해져서 嫌名까지도 피휘하여 古書를 읽을 때 어려움과 혼란을 초래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피휘의 내용을 잘 숙지하여 이용한다면 古文書의 의심나고 막힌 곳을 해석하고 古文書의 眞僞, 성립 시기 등을 판별할 수 있어 편리함을 제공해주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避諱의 유래와 종류, 避諱의 방법 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 II. 본론

### 1. 避諱의 유래

피휘란 사람의 이름을 높여서 삼가 부르지 않는다는 뜻이다. 사람의 이름(名)은 상고 시대에 남과 나를 구별하기 위해서 처음 만들어졌다. 『說文解字』에서 “名은 自命也라. 从口夕하니 夕者는 冥也라. 冥不相見故로 以口自名이라(이름은 스스로 명명한 것이다.

口와 夕이 합하여 글자가 이루어졌으니 夕은 어두운 때이다. 어두워서 서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입으로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부른 것이다.”라고 하였다<sup>6)</sup>. 『顏氏家訓』에서 “古者에 名以正體라<sup>7)</sup>”고 하였듯이 이후 이름은 자신을 代表하는 명칭이 되어 自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神聖不可侵의 성격이 있어 남들이 함부로 부를 수 없는 實名敬避와 尊名의 풍속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禮記』「檀弓」에서 “幼名冠字”<sup>8)</sup>라 하여 어렸을 때는 이름을 부르지만 관례를 치루어 어른이 된 뒤에는 존귀한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친구나 주위의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字를 새로 지어 그들을 배려해주었던 것이다. 이처럼 이름은 自稱하여 겸손함을 나타낼 수 있지만 남이 함부로 부를 수 없는 尊嚴性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까지도 중국 사람들이 상대방을 높일 때 大名, 高名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러한 전통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지위가 높거나 향렬이 높으며 나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직접 부를 수도 있었는데 『禮記』「曲禮」의 “父前에 子名하고 君前에 臣名이니라(아버지 앞에서는 아들은 이름을 일컫고 임금의 앞에서는 신하는 이름을 일컫는다)”고 하였다<sup>9)</sup>. 또한 윗 사람은 아랫 사람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윗사람조차도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그들에 대해서 특별한 존경과 예의를 나타낸 것이다. 『禮記』「曲禮下」의 “國君은 不名卿老世婦하고 大夫는 不名世臣姪娣하고 士는 不名家相長妾이라(나라 임금이라도 늙은 대신과 세부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며 대부라도 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老臣과 처의 조카, 처제를 이름 부르지 아니하며 士는 家相과 長妾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한다)”라고 한 것이 이를 반영한다<sup>10)</sup>.

1) 王彥坤. 歷代避諱字彙典.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7. p.126.  
2) 孫詒讓 撰. 周禮正義 8책. 北京. 中華書局. 1987. p.2098.  
3) 李相玉 譯著. 新完譯禮記上. 서울. 明文堂. 1985. p.87.  
4) 段逸山 主編. 醫古文.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718.  
5) 陳澧. 禮記集說大全. 대전. 學民文化社. 1990. p.161.

6) 許慎 著. 段玉裁 注. 說文解字注. 서울. 대성문화사. 1990. p.56.  
7) 顏之推 著. 程小銘 譯注. 顏氏家訓全譯. 貴陽. 貴州人民出版社. 1995. p.64.  
8) 李相玉 譯著. 新完譯禮記上. 서울. 明文堂. 1985. p.178.  
9) 李相玉 譯著. 新完譯禮記上. 서울. 明文堂. 1985. p.58.  
10) 李相玉 譯著. 新完譯禮記上. 서울. 明文堂. 1985. p.100.

이러한 尊名의 풍속은 죽은 뒤에까지 연장되어 『禮記』「曲禮上」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卒哭乃諱나 禮에 不諱嫌名하며 二名은 不偏諱니라 逮事父母어든 則諱王父母하고 不逮事父母어든 則不諱王父母니라 君所에는 無私諱하고 大夫之所에는 有公諱니라 詩書不諱하며 臨文不諱하며 廟中不諱니라 夫人之諱는 雖質君之前이라도 臣不諱也며 婦諱는 不出門이라(卒哭을 지낸 뒤라야 비로소 그 이름을 諱한다. 禮에 글자가 달라도 음이 같은 것은 휘하지 않으며 두 글자로 된 이름이면 한 글자만은 휘하지 않는다. 부모가 그 조부모를 섬길 때에 있었으면 조부모의 이름을 휘하지만 부모가 일찍 죽어서 부모가 조부모를 섬기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면 조부모의 이름은 휘하지 않는다. 임금의 곳에서는 신하의 사사로운 휘는 하지 않으며 대부의 곳에서는 공연히 휘하는 예절이 있다. 즉 대부가 자기의 先君의 이름을 휘하는 것이다. 詩書에 나오는 문자는 諱에 저촉되더라도 忌諱하지 않으며 글을 지을 때에도 휘하지 않으며 사당 안에서는 휘하지 않는다. 夫人의 諱字는 비록 임금의 앞에서 응대할 때라도 신하가 휘하지 않으며 婦女의 휘자는 문 밖에 나오지 않는다.<sup>11)</sup>”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避諱의 시작은 소박한 존경과 공경을 나타내는 不名(살아 있는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음)과 諱(죽은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음)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諱는 死諱爲主였음도 알 수 있다.

청나라 趙翼이 쓴 『陔餘叢考』 卷31의 설에 의하면 『詩經』에서 주나라 문왕, 무왕, 성왕의 諱인 昌, 發, 誦 등의 글자가 피휘되어 있지 않고 諱라는 것이 최초로 나타난 것은 『左傳』 桓公 6년조나 『國語』「晉語」9로부터이므로 이 풍속이 일어난 것은 東周 이후 일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근년 郭沫若이 그의 저서 『金文叢考』에서 금문의 자료를 들며 휘의 풍속은 周나라는 물론이요 전국 시대에도 행해지지 않고 秦나라로부터 시작했다고 하였다. 秦나라 때에는 生諱(살아 있는 사람의 이름을 피휘하는 일)까지도 행하여져서 진시황의 이름인 政의 嫌名(음이 같은 글자)인 正이나 2세 황제의 이름 胡亥의 胡字가 缺筆되었

던 것이 『瑯琊臺刻石』의 비문이나 『史記』「秦始皇本紀」 등의 기재에 의하여 밝혀졌다. 이러한 것은 이후 중국 역사에서 피휘의 새로운 역사를 열었고 수많은 官名, 地名, 人名이 개폐되어 많은 혼란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秦나라 이후 처음에는 天子와 諸侯의 이름을 피휘하는데 국한되었으나 후대에 이르러서는 휘의 제한은 점점 엄중해져서 이름 뿐만 아니라 字, 諡號, 帝號, 年號도 피휘하였고 王의 이름을 諱하는 公諱와 더불어 개개인의 父祖 이름을 諱하는 私諱도 크게 유행하였다<sup>12)</sup>.

## 2. 避諱의 종류

避諱에는 廣義와 狹義의 두 가지 내용이 있다. 廣義의 避諱는 공경하여서 諱하는 敬諱, 心理적으로 꺼려서 諱하는 忌諱, 중오하고 미워하여서 諱하는 憎諱가 있고, 狹義의 避諱는 전적으로 敬諱만을 지칭한다.

### 1) 敬諱

敬諱는 전통 사회의 禮法과 風俗의 規定에 의해 또는 존경하는 마음의 발로에 의해서 직접 君主나 尊長이 이름을 부르지 못하거나 君主나 尊長과 같은 이름 혹은 발음이 비슷한 글자까지도 忌諱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풍속은 周나라 때부터 시작하여 秦나라, 漢나라를 거쳐 唐나라, 宋나라 때 크게 성행하였고 淸나라 말기까지 지속되어 근 25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敬諱의 처음에는 단지 임금이나 上司, 父祖, 모든 尊者, 長者,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 및 이름과 완전히 같은 글자만 피휘하였는데 이를 避正諱라고 부른다. 이의 예는 漢나라 武帝의 이름이 徹이었기 때문에 漢나라 때 사람들은 徹字 대신 通字나 또는 다른 글자를 사용하였다. 『史記』「高祖本紀」에서 “高祖曰 列侯諸將은 無敢隱朕하고 皆言其情하라” 하였는데<sup>13)</sup> 列侯는 爵號로써 “秦爵二十級爲徹侯”인데 당시에 徹侯라고 말했지만 列侯라고 한 것은 司馬遷이 무제의 諱를 避하여 고친 것이다. 『漢書』「高帝紀下」에서는 通侯라고 하였다. 『漢書』「蒯通傳」에서

12) 李弘植 편. 國史大事典. 서울. 學園出版公社. 1987. p.1807에서 재인용.

13) 司馬遷. 史記 2冊. 北京. 中華書局. 1982. p.380.

11) 李相玉 譯著. 新完譯禮記上. 서울. 明文堂. 1985. p.87.

“蒯通은 范陽人也니 本與武帝同諱라”고 하였는데<sup>14)</sup> 이는 본래 이름이 蒯徹인데 蒯通으로 적었다는 뜻이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西漢 淮南王 劉安의 아버지 厲王의 이름이 長이었기 때문에 그가 지은 『淮南子』에는 長字를 모두 修字로 대체하였다. 『淮南子』 「修務訓」에서 이르기를 “人性各有所修라”고 하였는데<sup>15)</sup> 여기의 “所修”는 “所長”이다. 또 「齊俗篇」에서 이르기를 “故高下之相傾也 短修之相形也 亦明矣라”라고<sup>16)</sup> 한 것은 『老子』卷上 2章의 “長短相形 高下相傾”이라 한 곳과 비교해보면 “短修”는 바로 “短長”과 같다.

삼국 시대 이후 이름과音が 같은 것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音が 비슷한 글자까지도 回避하였는데 이름 避嫌名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獨異志』라는 책을 보면 晉나라 羊祜가 荊州守로 있었는데 은혜가 시골 마을에까지 미치었다. 그가 죽자 온 형주 사람들이 모두 祜字를 말하지 않고音が 같으면 또한 바꾸어 불렀다고 하였다. 『晉書』 「羊祜傳」을 보면 형주 사람들이 그의 이름 祜를 諱하여 戶를 門이라 부르고 “戶曹”를 “辭曹”로 바꾸어 썼다고 하였다<sup>17)</sup>. 후세에 避嫌名을 諱하는 風氣가 더욱 심하여져서 宋나라 때 반포한 文書들을 보면 한 임금에게 있어 避嫌名에 해당하는 글자가 50字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었다.

敬諱의 처음 두 글자의 이름에 있어서는 단지 두 글자를 連用할 때만 避하고 글자마다 諱하지는 않았다. 『禮記』 「曲禮上」에서 이르기를 “二名不偏諱(두 글자로 된 이름의 한 글자만은 諱하지 않는다)”라 한 것이 이를 말한 것이다. 그러나 唐나라 때에 이르러 두 글자 이름도 각각 諱하였다. 『舊唐書』의 기록에 의거해보면 당태종은 避諱하여 글자를 고쳐 經典의 말까지 어긋나게 되는 것을 보고 깊이 탄식하여 武德 9년(626)에 勅을 내리기를 “依禮컨대 二名은 不偏諱

라하나 近代以來로 兩字兼避하야 廢闕已多하고 率意而行하야 有違經典이라 其官號人名及公私文籍에 有世民兩字가 不連續者는 并不須諱라”고 하였다<sup>18)</sup>. 이후로 改字하는 風氣가 다소 누그러져 특히 고대의 경전 저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함부로 改字하지 않았다. 그러나 公私文籍은 여전히 避諱하였고 人名, 地名도 改字하였다. 지금 보는 당나라 때 지은 『晉書』, 『隋書』, 『南史』, 『北史』 등의 역사서는 世를 代로 고치고 民을 人으로 바꾼 예가 흔히 나타나는 것을 볼 때 太宗 사후에 비록 偏諱도 널리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당나라, 송나라 시대에 이르러서는 敬諱를 避하는 것이 번잡해지고 넘쳐흘러 嫌名, 偏諱 외에 또 부수가 들어간 글자를 避諱하였다. 당나라 武宗의 이름이 炎인데 談, 淡, 鄭의 글자도 함께 避諱하였다. 당시 사람들은 談을 譚으로 고치고, 淡을 澹으로 썼다. 당나라 順宗의 아들 李經은 본래 鄭王에 봉해졌는데 그의 후손 李嗣周는 武宗의 이름을 피하여 작위를 계승할 때 嗣覃王으로 改稱하였다.

더욱 심한 경우는 송나라 때 宋僊의 본래 이름은 延渥이었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延浩라서 두 번째 글자에 물수 변을 둔 것이었다. 開寶 초에 임금이 개명하라고 하여 僊이라 하였다. 이는 避諱가 글자의 形旁에까지 미쳤음을 말해준다.

경휘는 이름을 諱하는 것이 爲主였으나 字를 휘하는 경우, 姓을 휘하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는 陵名, 諡號, 年號까지도 휘하였다. 『顏氏家訓』 「風操篇」에 이르기를 “古者에 名以正體하고 字以表德하며 名은 終則諱之하고 字는 乃可以爲孫氏라... 江南은 至今不諱字也언마난 河北士人은 全不辨之하야 名亦呼爲字하고 字固呼爲字라 尙書王元景兄弟는 皆號名人이라 其父名雲字羅漢이어늘 一皆諱之하니 其餘는 不足怪也라(옛날에 이름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字로써는 덕행을 나타내었으며 이름은 죽은 뒤에는 避諱를 하고 字는 자손의 씨를 삼을 수 있었다... 강남 지방은 지금까지도 字는 避諱하지 않지만 하북지방의 사대부들은 이름과 字를 전혀 구분하지 않아 이름도 字라고 부르고 字는 당연히 字라고 불렀다. 尙書 왕원경 형

14) 班固. 漢書 7冊. 北京, 中華書局. 1992. p.2159.  
 15) 劉安 等撰. 許匡一 역주. 淮南子全譯. 貴陽, 貴州人民出版社. 1995. p.1143.  
 16) 劉安 等撰. 許匡一 역주. 淮南子全譯. 貴陽, 貴州人民出版社. 1995. p.598.  
 17) 王彥坤. 歷代避諱字匯典.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7. p.186.

18) 劉昫 等撰. 舊唐書 1. 北京, 中華書局. 1991. pp.29-30.

계는 모두 名人이라고 불리워졌다. 그들의 아버지 이름은 雲이고 字는 羅漢이었는데 그들 아버지의 이름과 字를 모두 피휘하였으니 나머지 사람들이 字를 諱하는 것은 더 이상 피휘할 것도 없다”라고 하였다<sup>19)</sup>. 이는 南北朝 시대의 字를 諱하는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명나라 때에는 나라의 姓이 朱姓이어서 內臣 중에서 朱姓을 가진 자는 姓을 諸로 바꾸라고 勅을 내렸는데 이는 『禮記』의 “公族無刑人”의 뜻에 부합시킨 것이다. 이것이 諱姓의 예이다.

南朝의 宋나라 明帝는 長寧郡의 명칭이 文帝의 陵名과 같았기 때문에 永寧郡으로 바꾸었는데 이는 陵名을 諱한 것이다. 魏나라 때 처음 司馬昭의 아버지 司馬懿에게는 文侯라는 시호를 내리고 형 司馬師에게는 武侯라는 시호를 내렸는데 司馬昭는 文과 武가 魏나라 高祖 曹丕, 太祖 曹操의 시호이므로 감히 二祖와 같게 할 수 없다고 표를 올려 고쳐줄 것을 청해 드디어 시호를 宣文, 忠武로 바꾸었는데 이것은 諱號를 諱한 것이다. 晉나라 惠帝는 年號를 永康이라 하였기 때문에 永康縣을 武康縣으로 고쳤는데 이는 年號를 諱한 것이다. 敬諱의 내용은 대단히 풍부하여 사실상 이름을 諱한 한 조목에 그치지 않는다.

## 2) 忌諱

기휘는 두려워하거나 꺼려하는 심리 상태에서 나와 吉하거나 이롭지 않은 흉악한 글자나 音節을 諱用하고 諱言하는 것이다. 『晁氏客語』라는 책을 보면 “대궐 안에서는 危, 亂, 傾, 覆의 글자를 휘하여 궁중에서는 모두 감히 이를 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어지러워지고 기울어지고 뒤집어질까 염려하여 이러한 말을 입에 올리지 않은 것이다<sup>20)</sup>.

뫼나라 사람들은 離散된다는 말을 꺼려하여 梨를 圓果라고 불렀고 傘을 豎笠이라고 불렀다.

前秦의 厲王 符生은 애꾸였다. 『通志』189권에서 “符生이 目疾이 있어 不足, 不具, 少, 無, 缺, 傷, 殘, 毀, 偏, 隻 등의 말을 忌諱하여 모두 말할 수가 없었는데 주위에서 이를 어겨 죽은 자를 이루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일찍이 태의령 程延으로 하여금 安胎藥을 습하게 하고 人蓼이 좋은지 나쁜지와 藥量의 다소를 물었는데 程延이 이르기를 비록 소소한 것은 갖추지 못했으나(小小不具) 가히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라고 하자 符生이 자기의 눈을 기롱한 것이라 여겨 程延의 눈알을 파낸 뒤에 목베어 죽였다”고 하였다<sup>21)</sup>.

『容齋三筆』14卷 政和文忌條를 보면 宋나라 徽宗 政和 3년에 臣僚들이 이르기를 “근자에 시험에 쓴 글자를 보면 경전에 있는 말이지만 지금은 忌諱하여 피할 것들이 있으니 예를 들어 大哉堯之爲君, 君哉舜也, 制治于未亂하여 保邦于未危, 吉凶悔吝生乎動, 吉凶與民同患 등의 哉音은 災와 발음이 같고 危, 亂, 凶, 悔는 사람들이 듣기에 즐겁지 않으니 모두 피휘해야 합니다. 이제 태평성세를 당하여 어찌 이런 것을 두는 것인 마땅하겠습니까?”한데 조칙을 내려 금지시켰다<sup>22)</sup>.

『元典章』28卷에 실려 있는 원나라 至元 3년 4월의 『表章定制體例』는 上奏文에서 피해야 할 나쁜 글자 167자를 규정한 것이다. 여기에 속하는 글자는 哀, 暗, 罷, 敗, 板, 暴, 奔, 崩, 弊, 別, 擯, 病, 剝, 播, 布, 沈, 塵, 愁, 出, 除, 辭, 徂, 摧, 蕩, 典, 奠, 吊, 短, 斷, 厄, 法, 反, 服, 覆, 改, 槁, 革, 隔, 孤, 辜, 古, 怪, 歸, 鬼, 害, 忽, 化, 壞, 幻, 患, 換, 荒, 隳, 毀, 諱, 晦, 昏, 禍, 疾, 極, 忌, 祭, 駕, 艱, 漸, 盡, 絕, 亢, 考, 尅, 空, 枯, 苦, 狂, 睽, 困, 老, 離, 戾, 了, 靈, 亂, 落, 埋, 邁, 昧, 蒙, 夢, 迷, 眇, 滅, 泯, 沒, 墓, 逆, 虐, 叛, 偏, 破, 仆, 棄, 愆, 遷, 戕, 切, 寢, 傾, 囚, 去, 泉, 缺, 散, 喪, 掃, 殺, 傷, 升, 尸, 逝, 收, 死, 替, 殄, 土, 頽, 退, 挽, 亡, 枉, 危, 違, 遐, 仙, 憲, 陷, 享, 殮, 孝, 刑, 凶, 休, 偃, 奄, 晏, 厭, 夭, 移, 幽, 憂, 愚, 怨, 隕, 災, 折, 誅, 追, 墜, 迤, 罪 등이다.

이 중 이러한 글자를 금지시킨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改字를 금지시킨 이유는 帝王은 帝業이 2세, 3세를 거쳐 만세에 이르기를 바라지 아니함이 없기 때문에 改朝換代를 꺼려하여 상주문에

19) 顏之推 저. 程小銘 역주. 顏氏家訓全譯. 貴陽. 貴州人民出版社. 1995. p.64.

20) 王彥坤. 歷代避諱字滙典.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7. p.106.

21) 王彥坤. 歷代避諱字滙典.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7. p.33.

22) 王彥坤. 歷代避諱字滙典.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7. p.605.

改字를 쓰지 못하게 한 것이다. 駕字는 옛날에 帝王의 죽음을 晏駕라고 불렀으므로 또한 금지시킨 것이다. 靈字는 옛날에 靈柩, 靈床, 靈位처럼 죽은 사람과 관련시켜 불렀으므로 금지시킨 것이다. 나머지는 생략한다.

陳垣은 至元 3년은 서기 1266년으로 이 때는 송나라가 망하기 10여년 전으로 이들의 글자는 금나라 때부터 沿用되어 온 것이지 원나라 사람들이 창시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 곳의 注에 있는 “某字系舊式”, “某字近用不駁” 등의 문장을 보면 그 來歷이 반드시 하나의 朝代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요 또 원나라 초기에는 모든 임금이 漢文에 익숙하지 않았는데 어찌 忌諱가 있음을 알았겠는가라고 하였다<sup>23)</sup>.

淸나라 초기 서적에서는 항상 胡, 虜, 夷, 狄 등의 글자를 피회하였다. 청나라 世宗 雍正 11년(1733)에 內閣에 諭示하기를 “짐이 본조의 사람이 간행하고 베끼기 서적을 보건대 胡, 虜, 夷, 狄 등의 글자를 만나면 공백으로 두거나 형체나 소리를 바꾸어 夷는 彝로, 虜는 鹵와 같이 쓴 것들은 해석하기가 어렵다. 그 뜻을 헤아려 보건대 本朝에서 忌諱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회하여 공경하고 삼감을 밝힌 것이나 이것이 아주 이치를 거스리고 義를 犯하며 不敬스럽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금후로는 文字를 짓거나 서적을 간행할 때 만약 여전히 前轍을 답습하여 이와 같은 글자를 공백으로 두거나 다른 것으로 바꾸는 자는 大不敬律에 의거하여 죄를 다스릴 것이다”라고 하였다<sup>24)</sup>.

『漢語方言概要』제9장을 보면 광둥어에서 豬肝을 豬潤으로 불렀는데 이는 肝의 발음이 범할 干字와 같아서 이롭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에 뜻이 반대되는 潤字로 바꾸어 부른 것이다. 기타 동물의 肝도 마찬가지로 潤이라고 불렀다<sup>25)</sup>. 또 같은 책에서 病을 꺼려하는 심리적 현상으로 客家方言에서 生病을 唔自然이라 부른다고 하였다<sup>26)</sup>.

### 3) 憎諱

혐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에서 나와 그 이름과 성으로 사물을 일컫고 싶지 않은 것을 憎諱라고 부른다. 피휘는 尊者의 諱를 피하는 것이 통례이나 언급하고 싶지 않거나 원수와 이름과 성이 같은 경우에는 바꾸어서 피회하였는데 陳垣은 이를 惡意避諱라고 하였다. 惡意避諱는 비록 많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敬諱와 마찬가지로 역사에 영향을 미쳤고 古書를 읽을 때 혼란을 초래함으로 역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당나라의 平盧, 范陽, 河東의 三鎮節度使 安祿山은 玄宗 말년에 반란을 일으켜 황제를 참칭했다. 당나라 숙종이 즉위한 후 安祿山은 國賊이 됨으로 그의 姓이 불리워지는 것을 싫어하였다.

『新唐書』「李抱玉傳」에 이르기를 “李抱玉은 본래 安興貴의 曾孫으로 대대로 河西에 살았다 ... 安祿山이 난을 일으키자 南陽을 지키면서 적의 사신을 목베었다. 至德 2년에 임금께 아뢰기를 ‘대대로 涼州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逆臣과 같은 성을 쓰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하자 조칙으로 姓을 하사하고 본적을 京兆로 옮겼기 때문에 모든 족척들이 李氏로 바꾸었다.”고 하였다<sup>27)</sup>.

『新唐書』「地理誌」를 살펴보면 至德 元年과 2년에 바꾼 郡縣의 명칭은 모두 安字가 있었기 때문이다.

至德 元年에 바꾼 것을 보면 安定郡을 保定, 安化郡을 順化, 安靜縣을 保靜으로 바꾸었다. 至德 2년에 바꾼 것은 다음과 같다. 安邑縣을 虞邑으로, 安邊郡을 興唐으로, 安康郡을 漢陰으로, 尙安縣을 萬全으로, 咸安郡을 蓮山으로, 同安郡을 盛唐으로, 同安縣을 桐城으로, 綏安縣을 廣德으로, 唐安縣을 唐興으로, 洵安郡을 洵水로, 寶安縣을 東莞으로, 遂安縣을 晉康으로, 安南縣을 鎮南으로, 保安縣을 保寧으로, 齊安縣을 恩平으로, 萬安郡을 萬全으로, 安城郡을 嶺方으로, 安城縣을 保城으로, 安京縣을 保京으로, 安昌縣을 義昌으로, 安樂郡을 尙樂으로, 始安郡을 建陵으로, 始安縣을 臨桂로, 興安縣을 理定으로, 安仁縣을 容山으로, 安義縣을 永業으로, 安海縣을 寧海로, 崇安縣을 崇平으로, 軍安縣을 軍寧으로, 福祿郡을 唐

23) 陳垣. 史諱舉例. 北京. 中華書局. 2006. p.132.  
 24) 陳垣. 史諱舉例. 北京. 中華書局. 2006. p.28.  
 25) 王彥坤. 歷代避諱字滙典.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7. p.108.  
 26) 王彥坤. 歷代避諱字滙典.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7. p.30.

27) 歐陽脩, 宋祁 撰. 新唐書 15. 北京. 中華書局. 1991. p.4619.

林으로, 安遠縣을 柔遠으로, 安定州를 宜定으로 고쳤다<sup>28)</sup>.

『舊唐書』「經籍志上」起居注類에 “『晉崇寧起居注』十卷”이라는 말이 있고<sup>29)</sup> 『新唐書』「藝文志二」도 동일하다<sup>30)</sup>. 錢大昕의 『考異』 58卷에 이르기를 “崇寧은 崇安으로 해야 하니 곧 隆安이다”라고 하였고 陳垣은 『史諱學例』 卷3에서 보충하여 이르기를 “당나라 사람들이 玄宗의 諱를 피하여 흔히 隆을 崇으로 바꾸었고 당나라 숙종 때 安祿山을 미워하여 아마 安을 寧으로 고친 것 같다”라고 하였다<sup>31)</sup>. 隆安은 東晉 安帝 때의 연호로 397년~401년까지 5년이 있었다.

沈德符의 『野荻編』 二에서 이르기를 “송나라가 남쪽으로 천도한 후에 군주가 金字를 쓸 때 모두 今으로 적었는데 完顏(금나라 왕의 姓)과는 대대로 원수여서 그의 國號를 부르지 않고자 한 것이다. 高宗의 劉貴人, 寧宗의 楊后에 이르러서도 金字를 쓸 때 또한 그러하였은 즉 궁에 거처하는 부녀자들까지도 또한 바꾸어서 쓴 것이다”라고 하였다<sup>32)</sup>.

『野荻編補遺』 一에서 또 이르기를 “명나라 초기 貿易文契에서 吳元年 洪武元年이라 쓸 때 모두 原자로써 元자를 대신하였으니 민간에서 元나라 사람들을 미워하여 그 國호를 쓰고자 아니한 것이다”라고 하였다<sup>33)</sup>. 『野荻編』 二에서 또 말하기를 “명나라 世宗 말년에 오랑캐의 소요를 고통스러워하여 夷狄이란 글자를 싫어하여 쓸 때마다 반드시 아주 작게 쓰고 詔書와 上奏文에도 모두 그러하였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당나라 숙종이 안녹산을 미워하고 남송의 사람들이 금나라 사람을 미워한 것과 같은 심리이다<sup>34)</sup>.

『宋史』「王子融傳」에 “融의 본명은 皞요 字는 子融이다. 元昊(1038년 西夏를 건국한 趙元昊)가 반란을 일으키자 字로서 이름을 삼기를 청했다(皞와 昊가 嫌名이기 때문이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름이 같은 것을 부끄러워 한 것이다.

『朱諤傳』에 이르기를 “初名은 絃이었는데 黨籍에 들어있는 사람의 姓名과 같았기 때문에 絃을 諤으로 개명한 것이다”라 하였다. 崇寧 2年 12월에 조칙을 내리기를 臣僚들의 姓名이 奸黨과 같은 자는 改名하라고 하였는데 奸黨은 元祐黨人을 말하는 것이다<sup>35)</sup>.

『文獻徵存錄』 一에서 “理鬯和의 字는 寒石이니 西華人이다. 본래의 姓이 李였는데 그의 성이 李自成과 같음을 부끄러워하여 이르기를 나는 이제부터 姓이 理다”라고 하였다. 『鮎埼亭集』 十四 「南岳和上退翁碑」에 이르기를 “退翁은 揚之興化縣 사람으로 姓이 李氏이다. 아버지 嘉兆가 甲申之變(李自成이 1644년 자금성을 점령하여 명나라를 멸망시킨 것)이 있는 후 그의 아들에게 글을 써주어 이르기를 “나의 始祖 咎繇는 理官이어서 자손이 그것 때문에 氏를 理로 하였다가 그 뒤에 발음이 같은 李氏로 바꾸었다. 이제 先皇帝가 사직을 위해 죽고 도적도 李氏나 내가 차마 도적과 같은 姓을 쓰겠는가. 나의 자손은 또한 理氏 姓을 회복하라. 나보다 먼저 中州의 李鬯和가 上書하여 理氏로 바꾸기를 청하였는데 나 嘉兆의 뜻이 그것과 합치된다. 天下에 二理가 전할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同姓이 되기를 부끄러워한 것으로 또한 辟휘의 독특한 새로운 국면을 열은 것이다<sup>36)</sup>.

### 3. 避諱의 方法

辟휘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辟휘의 방법도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改字와 空字, 缺筆의 3가지 방법이 주로 常用되었다.

#### 1) 改字

글자를 고치는 방법으로 辟휘한 것인데 代字라고도 하며 대체로 秦代에 이르러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대체하는 글자는 같은 뜻을 가진 것이 가장 흔한데 北齊의 顏之推는 말하기를 “凡避諱者는 皆須得其同

28) 陳垣. 史諱學例. 北京. 中華書局. 2006. pp.29-30.  
 29) 劉昫 等撰. 舊唐書 6. 北京. 中華書局. 1991. p.1997, 2020.  
 30) 歐陽脩, 宋祁 撰. 新唐書 5. 北京. 中華書局. 1991. p.1470.  
 31) 王彥坤. 歷代避諱字滙典.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7. p.3.  
 32) 王彥坤. 歷代避諱字滙典.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7. p.226.  
 33) 王彥坤. 歷代避諱字滙典.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7. p.592.  
 34) 王彥坤. 歷代避諱字滙典.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7. p.85.

35) 脫脫 等撰. 宋史 32. 北京. 中華書局. 1990. p.11108.  
 36) 陳垣. 史諱學例. 北京. 中華書局. 2006. p.30.

訓以代換之라(현재 피휘해야 할 글자는 모두 반드시 같은 뜻을 가진 말로 바꾸어야 한다. 筆者注：同訓은 同義詞로 같은 뜻을 가진 말이다)고 하였다<sup>37)</sup>.

『史記』「秦始皇本紀」에 “23년에 秦王이 다시 王翦을 불러 대장을 삼아 荊을 치게 했다”고 하였다. 張守節의 『史記正義』에서 이르기를 “秦이 초나라를 荊이라고 부른 것은 莊襄王의 이름이 子楚여서 그것을諱했기 때문에 荊이라고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sup>38)</sup>. 또 『秦楚之際月表』 端月注에서 司馬貞은 『史記索隱』에서 이르기를 “秦諱正故云端月也”이라 했는데 이는 진시황의 이름이 政이기 때문에 正月을 端月로 개칭했다는 것인데 이는 嫌名을 피한 것이다<sup>39)</sup>. 『琅邪臺刻石』에서 이르기를 “端平法度”, “端直敦忠”이라 한 것은 모두 端字로서 正을 대신 한 것이다<sup>40)</sup>.

漢나라는 진나라의 제도를 계승하여 또한 改字法이 있었다. 『漢書』「高帝紀」注에서 荀悅을 引用하여 이르기를 “邦이라는 글자를諱하여 國이라고 하였다”하였다. 顏師古가 이르기를 “臣下가 피휘하여 그것을 대신 사용한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漢高祖의 이름이 邦이라 國으로 대체한 것이다. 역사서 뿐만 아니라 經書도 改作을 했는데 『論語』「微子」의 “何必去父母之邦”을 한나라 때는 “何必去父母之國”이라고 했고 『尚書』「盤庚中」의 “安定厥邦”을 “安定厥國”이라고 하였으며 『周易』「蹇卦」의 “以正邦也”를 “以正國也”로 하였다<sup>41)</sup>. 그 뒤로 各紀가 荀悅의 설을 引用하고 있다. 『後漢書』各紀注에 質帝 이전에는 伏侯 『古今注』의 說을 引用하여 각각의 諱는 모두 뜻이 같은 互訓字로써 대신하였다고 하였다. 즉 한나라 惠帝의 이름이 盈이라서 盈數를 滿數로 바꾸고 한나라 文帝의 이름이 恒이라서 恒山을 常山이라 하였고 한나라 景帝의 이름이 啓라서 微子啓(紂 임금의 庶兄)를 微子開라 하였으며 후한 光武帝의 이름이 秀라서 秀才를 茂才로 바꾸었다. 임금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있어서도 改字를 하였는데 司馬遷은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談이었기 때문에 『史記』에서 張孟談을 張孟同으로, 趙談을 趙同으로, 李談을 李同으로 改字하였다. 南朝 송나라의 范曄은 아버지의 이름이 泰라서 『後漢書』에서 郭泰를 郭太라 하고 鄭泰를 鄭太라 하였다<sup>42)</sup>.

후세에 이르러서 모든 왕조마다 황제는 改字를 요구하였으며 추존한 황제도 이 예를 적용하였다. 예를 들어 당나라 高祖 李淵의 아버지 이름이 李昞인데 嫌名인 秉까지를 피휘하여 『北史』「崔鑿傳」에서 崔秉을 崔康이라 하였고 『王思政傳』에서도 王肅의 동생 王秉을 王康이라하고 『薛安都傳』에서 沮渠秉을 沮渠康이라 하여 康字로 秉字를 대신하였는데 글자의 모습이 비슷한 것을 取한 것이다<sup>43)</sup>.

당나라 高祖의 이름이 淵이어서 『太素』에서 太淵을 太泉(穴位名)으로 바꾸었다. 당나라 태종의 이름이 世民이라서 世는 代로 고쳤고 世가 들어가는 글자는 叟로 고쳤는데 『太素』의 注를 보면 殮泄을 殮洩이라 하였다. 그리고 民은 人으로 고치거나 𠂔으로 고쳤으며 民이 들어간 글자는 氏로 바꾸었는데 𠂔을 昏이라하고 緡을 緡이라 한 것 등이다<sup>44)</sup>.

우리나라에 피휘법이 언제 들어왔는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삼국시대의 金石文내지 史書에는 피휘와 缺筆한 예가 허다하다. 신라 聖德王 때 세운 신라 文武王陵碑에는 세운 날짜를 “廿五日景辰建碑”라 하였고 신라 興德王 때 세운 崇福寺碑文에는 “寶曆景午春”이라 되어 있는데 이 景辰과 景午는 丙辰(716년), 丙午(826년)의 해로 당나라 고조의 아버지 李昞의 음을 피휘해서 景으로 바꾼 것이다. 寶曆은 당나라 敬宗 때의 연호로 825년, 826년 두해에 걸쳐 있었다.

피휘는 고려시대 때 크게 유행하였는데 주로 임금의 이름을諱하였다. 역사서, 문집, 금석문의 탁본 등 고려 때 나온 자료의 문장을 조사하여보면 태조의 아

37) 顏之推 저. 程小銘 역주. 顏氏家訓全譯. 貴陽. 貴州人民出版社. 1995. p.47.  
38) 司馬遷. 史記 1. 北京. 中華書局. 1982. p.234.  
39) 司馬遷. 史記 1. 北京. 中華書局. 1982. p.766.  
40) 段逸山 주편. 醫古文.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719.  
41) 陳垣. 史諱學例. 北京. 中華書局. 2006. p.1.

42) 王彥坤. 歷代避諱字滙典.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7. p.3.  
43) 王彥坤. 歷代避諱字滙典.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7. p.3.  
44) 段逸山 주편. 醫古文.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719.

버지인 세조의 휘자 隆, 태조의 휘자 建, 혜종의 휘자 武, 정종의 휘자 堯, 목종의 휘자 誦 등을 피휘한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세조의 휘자 隆의 경우 금나라의 연호인 正隆을 正豐으로 바꾸어 쓰고 태조의 휘자 建은 후한 헌제 때의 연호인 建安을 立安으로, 남송 고종의 연호 建炎을 立炎으로 바꾸어 썼다. 혜종의 휘 武의 경우 삼국유사에서 周武王을 周虎王으로 적고 명태조의 연호 洪武를 洪虎로, 후한의 武帝를 虎帝로 적었으며 鳳巖寺 靜眞大師塔碑文의 “上頌文虎兩班及僧官”의 文虎는 文武로 武를 휘하여 虎로 적은 것이다. 정종의 휘 堯의 경우는 삼국유사 고조선조에서 與堯同時를 與高同時로 적어 堯 대신 高자를 썼다. 성종의 휘자인 治의 경우 원나라 영종의 연호인 至治를 至理로 그리고 “혁거세治육십년”을 “혁거세理육십년”으로 각각 바꾸어 썼으며 심한 경우에는 송나라 태조의 연호인 建隆(960~962)을 峻豐(태조의 휘 建을 峻으로 바꾸고 세조의 휘 隆을 豐으로 바꾸었음)으로 바꾼 경우도 있다. 고려시대에는 金石文 『均如傳』 『三國史記』 『三國遺事』 그리고 당시에 간행된 刻板을 보면 피휘를 하고 缺筆한 곳이 많이 나타난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피휘에 대한 문제점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임금이 될 사람이나 왕족의 이름을 僻字로 지어 폐단을 크게 감소시켰다. 태조 李成桂는 후에 이름을 ㅁ으로 고쳐서 조선시대에 걸쳐 이 ㅁ자를 써야 할 곳은 朝字로 바꾸거나 朝字로 읽는 것은 보편적이었다. 中國醫書에서 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의서에는 朝로 고쳐서 간행하였다. 大丘의 명칭이 大邱로 바뀐 것도 改字의 예이다. 1750년 大丘의 丘자가 공자의 이름과 같다고 하여 다른 글자로 고치자는 상소가 있었다. 처음 英祖는 경망하다고 크게 질책하였으나 점차 민간에서 쓰기 시작하였다. 朝鮮王朝實錄에는 1779년 5월부터 大邱가 나오기 시작하였고 그 후 丘와 邱가 혼용되다가 1850년 이후는 公私間에 모두 大丘를 쓰지 않고 大邱로 썼다고 한다<sup>45)</sup>.

2) 改稱

改稱이란 사람의 성명, 사물의 명칭 등에 휘해야 할 내용이 있을 때 그 사람의 字로서 부르던가 사물의 명칭을 새롭게 지어서 부르는 것이다.

『晉書』에서 당나라 고조 李淵의 諱를 피하여 劉淵을 그의 字를 써서 劉元海라 했고, 戴淵도 字를 써서 戴若思라고 하였다. 『新唐書』 「宰相世系表四上」에서 이르기를 白水丞(韋)千里의 이름은 昂인데 字로 행세하였다”라고 했는데 당나라 文宗의 諱 昂을 피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피휘 때문에 사물의 이름을 바꾼 경우는 다음과 같다. 『史記』 「封禪書」에 “野鷄夜雉”라 하였고 注에서 “雉也라 呂后名雉일새 改雉爲野鷄라”하였다. 한 고조 유방의 부인 이름이 雉여서 鶩 雉자 대신 野鷄라고 부른 것이다<sup>46)</sup>.

『鄴中記』에 이르기를 “銅爵, 金鳳, 冰井三臺는 모두 鄴의 北城 서북쪽 모퉁이에 있다. 金鳳臺의 처음 이름은 金虎臺였는데 石氏에 이르러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고 하였다. 後趙의 太祖 石虎의 이름을 휘하여 虎를 鳳으로 고친 것이다. 『清異錄』卷上에서는 “石虎 당시에 호랑이(虎)를 黃猛으로 불렀는데 諱를 피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였다<sup>47)</sup>. 『青箱雜記』卷2에서 이르기를 “錢武肅王의 諱는 鏐인데 지금까지 吳越지방에서는 石榴를 金櫻이라 부르고 劉家를 金家, 留家를 田家, 留住를 駐住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이는 五代十國 시대 吳越의 太祖 錢鏐의 鏐와 발음이 같은 것을 諱하여 새로운 物名을 만들거나 글자의 일부분만을 가지고 부른 것이다<sup>48)</sup>.

이러한 예를 몇 가지 더 언급하면 『神農本草經』에 나오는 薯蕷(마)는 당나라 代宗의 이름 豫를 휘하여 薯藥이라고 부르고, 또 송나라 英宗의 이름 曙를 휘하여 山藥이라고 하였다. 十國 때 吳나라의 楊行密이 江淮에 의거할 때 당시의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휘하여 苻溪를 菱溪라 부르고 杏을 恬梅라 부르고 蜜을 蜂糖으로 불렀다. 청나라 마지막 황제 溥儀의 儀를 휘하여 儀徵縣을 揚子縣으로 바꾸었다.

46) 司馬遷. 史記 1. 北京, 中華書局. 1982. p.1359.  
47) 王彥坤. 歷代避諱字匯典.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7. p.167.  
48) 王彥坤. 歷代避諱字匯典.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7. p.289.

45) 대구 이야기 홈페이지. [online] [cited 2009 May 6]. Available from: URL: http://www.daegustory.com.

3) 空字

피휘 때문에 글자를 쓰지 않고 비워두거나 혹은 □로 표기하는 것이다.

『南齊書』에서 梁나라 武帝가 아버지 順之를 휘하기 위하여 모든 順字는 從으로 고치고 順之라는 이름을 만나면 공란으로 두었다. 汲古閣本에는 오히려 그 옛 모습이 보존되어 있다. 『豫章文獻王巖傳』의 “宋從帝下”에서 注에 “北雍本에는 從이 順으로 되어 있는데 宋本에서 諱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 아래에 巖의 『上武帝啓』가 실려 있는데 “前侍幸□宅”이라는 말이 있고 ‘□’ 아래의 注에 “順之니 宋本에서 諱한 것이다”라 하였다. 이것은 임금의 蕭順之의 집으로 행차하는 것이어서 蕭子顯(『南齊書』의 著者)이 바로 그 글자를 공란으로 처리한 것이다.

4) 作某, 標諱

감히 君主나 尊長의 이름을 곧장 일컫지 않고 某字로써 대신하는 것이다. 『尚書』「金縢」에 무왕이 병이 있을 때 주공이 대신 죽기를 원하여 하늘에 있는 선왕들에게 대하여 빌기를 “惟爾元孫某 邁厲虐疾하니 若爾三王은 是有丕子之責于天하시니 以므로 代某之身하소서(당신들의 큰 손자 아무개가 나쁜 병이 들어 위태롭게 되어 있으니 만약 당신들 세 임금께서 하늘에 계시며 그 자손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시다면 이 단으로 아무개의 몸을 대신하도록 하여 주십시오)”라 하였다<sup>49)</sup>. 孔氏傳에서 이르기를 “元孫은 武王이요 某는 名이라 臣諱君故로 曰某라”고 하였다. 주나라 무왕의 이름은 發인데 축문은 神에 대하여 맹세하기 때문에 의당 무왕의 이름을 피해서는 안되는데 이는 반드시 뒤의 사관들이 諱하여 某라고 개작한 것이다. 吳元滿의 『六書正義』에 이르기를 “某는 未定之詞니 知其名이나 不敢犯諱하야 皆曰某라”하였고 周廣業이 또한 이르기를 “某로써 이름을 대신 한 것은 주나라로부터 한나라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렇게 하였다. 『三國志』에 이르러 비로소 『帝紀』에서 諱라고 썼다”고 하였다.

임금의 이름이나(御名) 돌아가신 임금의 이름(廟諱)을 들어내서 쓰지 않고 諱자를 써서 표현하는 것을 標諱라고 하는데 某라고 하는 경우와 비슷한 예이

다. 『三國志』 卷5 「魏后妃傳」의 表注에서 『魏書』를 인용하여 “(甄)后笑答之曰 諱等이 自隨夫人이어늘 我當何憂리오(견황후가 웃으면서 답하여 이르기를 예, 즉 후일의 명제 등이 스스로 부인을 따라갔는데 제가 무엇을 근심하겠습니까?)”라 했는데 여기서 諱는 魏明帝 睿를 가리킨다<sup>50)</sup>.

5) 缺字, 缺筆

缺字는 피휘 때문에 글자를 빠뜨리고 안 쓰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당나라 貞觀 3年 『等慈寺塔記』에서 王世充을 王充이라고 쓴 경우이다.

缺筆은 缺劃, 闕劃이라고도 하는데 휘하는 글자의 한 두 획을 생략하는 경우이다. 후세 사람들은 공자의 이름 丘를 피휘하여 글자를 쓸 때 丘라 써서 한 획을 빠뜨렸다. 당나라 사람들은 태종의 휘 世를 쓸 때 世 또는 卍라고 썼으며 송나라 사람들은 송태조 趙匡胤의胤자를 쓸 때 胤 또는 亂이라고 썼다. 청나라 사람들은 강희제의 이름 玄燁을 휘하여 玄자를 立이라 썼으며 仁宗의 이름 顛琰을 쓸 때 顛자를 顯으로 썼다. 이 법은 당나라 초기에 시작되어 청나라 말기까지 沿用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남 하동 쌍계사의 眞鑿禪師塔碑의 비문 중에 愍 이 愍으로, 泯이 泯으로 되어있는 것은 당태종 이세민의 民자를 缺筆한 것이다. 고려시대의 피휘 결획은 建을 隸으로 武를 正로 堯을 堯로 誦을 誦으로 한 것을 볼 수 있다.

6) 更讀(경독)

피휘해야 할 글자가 있을 때 그 형태를 함부로 바꾸지 않고 단지 그 발음을 달리하여 읽거나 혹은 다른 글자로 바꾸어 읽는 것이다. 『至正直記』 卷3에서 이르기를 “丘字는 성인 이름이다. 자손들이 經史를 읽을 때에 孔丘라고 한 것은 某라고 읽고 붉은 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라. 모든 丘字는 區로 읽고 만약 詩에서 韻이 되는 경우는 모두 休로 읽어라<sup>51)</sup>”고 하였는데 모두 更讀의 예에 해당된다. 이것은 우리나라 조선의 선비들도 習用하였던 것으로 丘, 參(증자의

50) 陳壽 撰. 三國志 1. 北京. 中華書局. 1982. p.161.

51) 王彥坤. 歷代避諱字彙典.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7. p.4.

49) 書經. 二以會影印本. 1983. p.509.

이름), 軻(맹자의 이름), 熹(주자의 이름) 등을 某라고 읽었고 ㅈ자는 모두 ‘조’라고 읽었다.

### Ⅲ. 結論

피휘의 유래, 종류, 방법에 관하여 연구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옛사람들은 사람의 이름은 자신을 대표하는 존엄성이 있다고 여겨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높이는 풍습이 있었고 관례를 행한 이후에는 字를 지어서 자신의 이름을 대신하게 하였는데 이것도 實名敬避, 尊名の 풍속과 관련이 있다.
2. 초기의 피휘는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不名과 죽은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死諱가 爲主였고 소박한 존경과 공경에서 출발하였다.
3. 生諱는 秦始皇 때부터 시작되었으나 초기에는天子나 제후의 이름을 피휘하는데 국한하였고 嫌名은 피휘하지 않았다.
4. 피휘의 종류는 공경하여 휘하는 敬諱, 심리적으로 꺼려서 휘하는 忌諱, 증오하고 미워하여 휘하는 憎諱가 있는데 敬諱가 근간을 이루고 있다.
5. 피휘를 하는 방법으로는 改字, 改稱, 空字, 作某, 標諱, 缺字, 缺筆(缺劃), 更讀 등이 있다.
6. 우리나라에서 피휘법이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신라시대의 金石文에 피휘와 결필한 예가 많이 나타나고 고려시대에는 왕의 이름을 改字, 缺筆로 휘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피휘의 폐단을 막기 위해 왕족의 이름을 僻字로 지어 그 피휘로 인한 폐단이 크지 않았다.

### 參考文獻

<단행본>

1. 王彥坤. 歷代避諱字滙典.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7. p.3, 4, 30, 33, 85, 106, 108, 126, 167, 186, 226, 289, 592, 605.
2. 孫詒讓 撰. 周禮正義 8책. 北京. 中華書局. 1987. p.2098.
3. 李相玉 譯著. 新完譯禮記上. 서울. 明文堂. 1985. p.58, 87, 100, 178.
4. 段逸山 主編. 醫古文.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718, 719.
5. 陳澧. 禮記集說大全. 대전. 學民文化社. 1990. p.161.
6. 許慎 著. 段玉裁 注. 說文解字注. 서울. 대성문화사. 1990. p.56.
7. 顏之推 著. 程小銘 譯. 顏氏家訓全譯. 貴陽. 貴州人民出版社. 1995. p.47, 64.
8. 李弘植 編. 國史大事典. 서울. 學園出版公社. 1987. p.1807
9. 司馬遷. 史記. 北京. 中華書局. 1982. p.234, 380, 766, 1359.
10. 班固. 漢書. 北京. 中華書局. 1992. p.2159.
11. 劉安 等撰. 許匡一 譯. 淮南子全譯. 貴陽. 貴州人民出版社. 1995. p.598, 1143.
12. 劉昫 等撰. 舊唐書. 北京. 中華書局. 1991. p.1997, 2020. pp.29-30.
13. 陳垣. 史諱學例. 北京. 中華書局. 2006. p.1, 28, 30, 132, pp.29-30
14. 歐陽脩, 宋祁 撰. 新唐書. 北京. 中華書局. 1991. p.1470, 4619.
15. 脫脫 等撰. 宋史. 北京. 中華書局. 1990. p.11108.
16. 書經. 二以會影印本. 1983. p.509.
17. 陳壽 撰. 三國志. 北京. 中華書局. 1982. p.161.

<기타>

1. 대구 이야기 홈페이지. [online] [cited 2009 May 6]. Available from: URL: <http://www.daegustory.com>.

